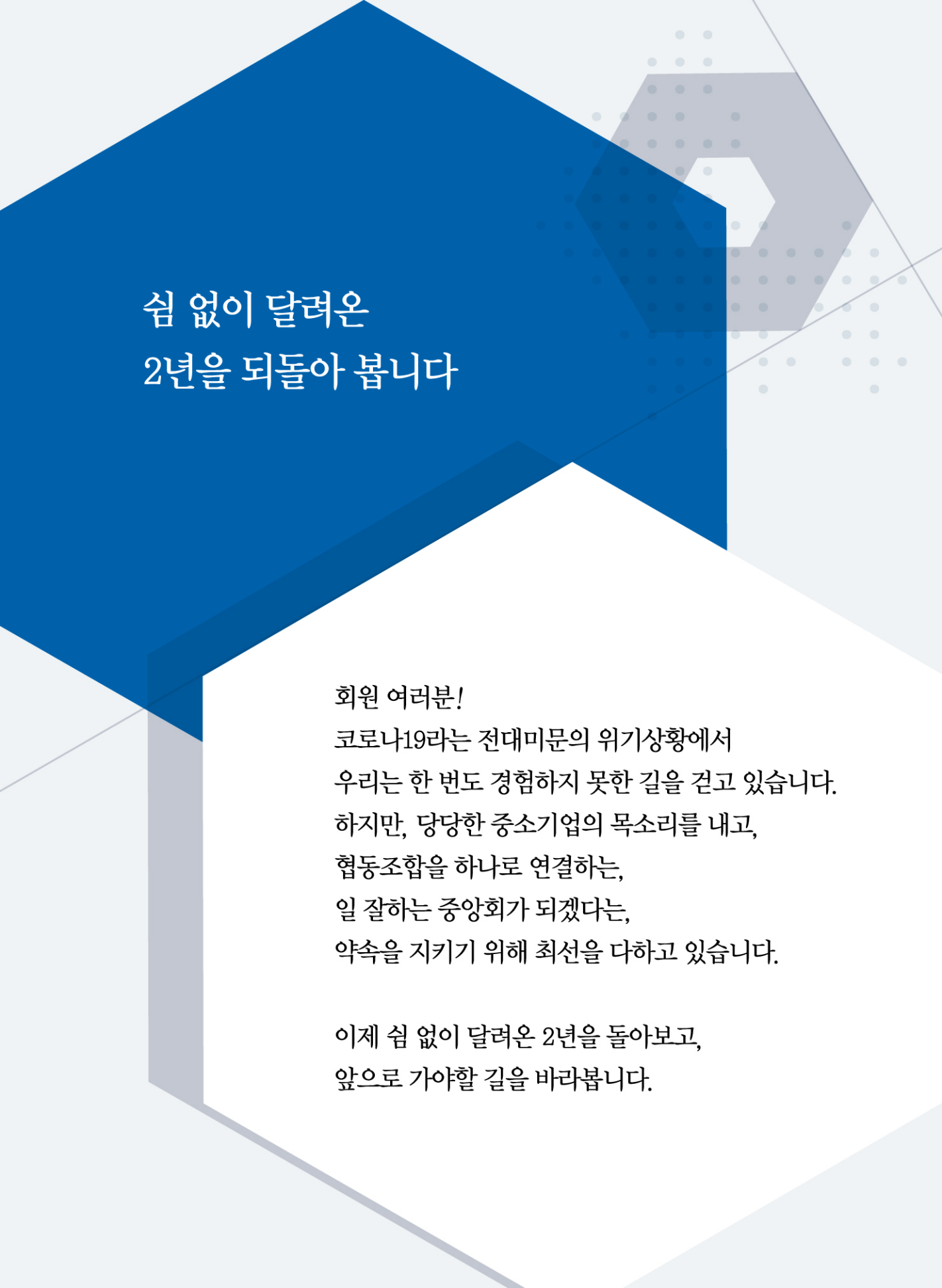


2021. 5.

협동조합과 함께, 중소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가 2년간 심 없이 달려왔습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쉽 없이 달려온 2년을 되돌아 봅니다

회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당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내고,
협동조합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 잘하는 중앙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쉽 없이 달려온 2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할 길을 바라봅니다.

CONTENTS ● ● ●

프롤로그 **대 전환** 大轉換
일 잘하는 중앙회가 되다.

I. **백절불굴** 百折不屈
위기에 굴하지 않다.

II. **중석몰촉** 中石沒鑊
당당한 중소기업을 만들다

III. **의기투합** 意氣投合
협동조합을 하나로 연결하다.

IV. **급난지봉** 急難之朋
협동조합의 버팀목이 되다.

에필로그 **약속** 約束
언제나 협동조합과 함께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대전환 大轉換



일 잘하는 중양회가 되다

지난 2년간 중양회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뢰받고 즐겨 찾는 중소기업 정책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경제단체 중 가장 먼저 중양회를 찾아주셨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 수장들도
주요행사때마다 중소기업 현안을 챙겼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들은 물론 상임위원장들과도
수시로 만나 입법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양회는 정부와 국회가
경제현안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정책파트너로서 자리 잡으며
일 잘하는 중양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I . 백절불굴 百折不屈



위기에 굴하지 않는다

지난해 우리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위기를 겪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은 날개 없이 추락하고,
골목마다 문 닫는 소상공인이 넘쳐났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끓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 7개 권역(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수도권, 서울, 충청권, 전국) 및 대구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습니다.

•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중기부, 고용부, 금융위 등에 애로사항 전달
• 언론기자 간담 통해 개선방안 마련 촉구



금융지원 '골든타임' 놓치면
중소·소상공인 위기극복 요원

- 20. 3. 20. 중소기업뉴스





정부와 국회도 우리의 목소리에 즉시 화답해주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은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 (1차)20.9월말 → (2차)21.3월말 → (3차)21.9월말
- 중앙회 내 중소기업금융지원센터 설치(21.3.29), 현장의 금융 애로 해결 지속

안정적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확대 및 요건·절차 완화

구 분	당 초	개 선
지원한도	67%	90%
지원기간	180일	240일
대상업종	1개 업종	15개 업종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인력수급에 숨통을 틔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개정(21.3.24), 개정법 시행 이전 소급 적용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중앙회 스스로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마스크 대란을 잠재우고 K-방역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 마스크·진단키트 공장의 스마트화 → 공급 확대·수급 원활화
- * 삼성과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20개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국민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 착한 임대인 운동 실시
- 민생경제 살리기 캠페인 추진

청년 일자리 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구축
- 약 3만개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 온라인 매칭



당당한 중소기업을 만들다

기업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중앙회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 잡기 위해
중소기업인들의 온 의지를 모아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노동현안에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치솟던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 18년 16.4%, 19년 10.9%
- 20년 2.87%,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
- 21년 1.5%,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도 최소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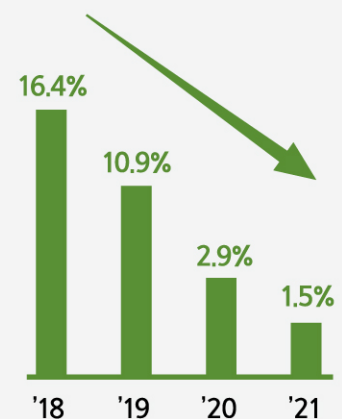
- (50~299인 사업장)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 업무량 급증 등 허용
- 탄력근로 확대 : 3개월 → 6개월
- 선택근로 확대 : 1개월 → R&D분야 3개월
- 근로시간 자율개선시 근로감독 면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규정을 완화했습니다.

- 처벌대상과 형량 완화, 도입시기 유예

구 분	당 초	개 선
처벌대상	대표 당연 포함	대표 제외 가능
사업주 징역 하한	2년~5년	1년
적용 유예	없음	50인 미만 3년
적용 제외	없음	5인 미만

최저임금 인상률



불공정 거래문제 이제 중앙회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확보했습니다.

- 「상생협력법」 개정(20.9.24), 시행(21.4.21)
 - 제값 받기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불공정 개선을 위해 노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 한국노총내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사용자와 근로자단체가 대기업 독점적 이익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처음 있는 일”

전속고발권 폐지를 저지하여
무분별하게 고소·고발되는 일을 방지했습니다.

- 전속고발권제도(공정위 고발시 검찰 수사 가능) 현행 유지





초과유보소득과세 도입을 저지하고 기업승계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끈질긴 항의와 설득으로
정부의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을 무산시켰습니다.**

- 당초 정부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 대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80% 이상 법인
 - 내용 : 재고나 외상매출로 쌓인 유보금에 과세
- 법인기업 70만개 중 과세대상 35만개 혜택



**기업승계 제도개선으로
장수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中企 최대주주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평가제도 영구 폐지
- 업종변경 확대 : 소분류 → 중분류
- 사후관리기간 완화 : 10년 → 7년
- 근로자요건 완화 : 근로자수 유지 → 총급여액 유지 추가
- 사전증여 확대 : 1인 수증 → 공동 수증 허용





협동조합을 하나로 연결하다

우리는 초연결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협동조합이 하나로 연결되어
서로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냈습니다.

협동조합의 협력사업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협동조합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참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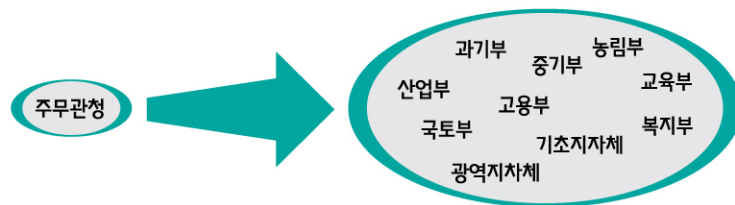
-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으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정책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20.9.24) 및 시행(21.4.21)

중소 지위 인정받는 협동조합,
정부지원사업에 속속 합류
- 21. 4. 26. 중소기업뉴스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주체를 획기적으로 확대했습니다.

- 보조금 지원주체 확대 : 주무관청 → 전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조례 제정, 협동조합 활성화계획 등을 통한 협동조합 지원예산 확보 근거 마련



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 적용 배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19.8.20),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 제외

주택가구(조)
공동상표 **IBIS**

펌프(조)
공동상표 **Pumpro**

전기(조)
공동상표 **WEZES**



지역 협동조합시대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지역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으로
지자체를 협동조합 지원 주체로 끌어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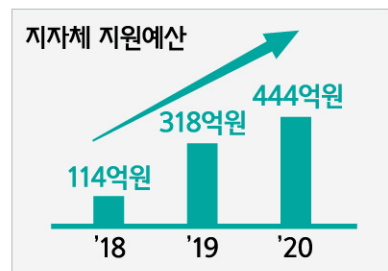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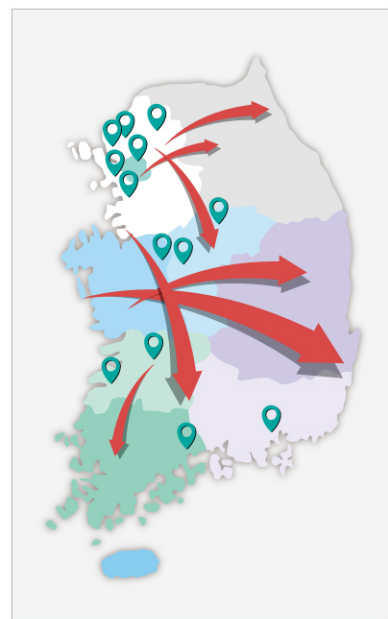
-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완료
- 19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완료
- 7개 광역지자체에서 협동조합 활성화계획 수립

시·도지사 간담회를 부활했습니다.

- 19년 7개, 20년 6개 지역
 -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 참여 확대

지역협동조합을 위한 지자체 지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인천) 어시장 노후시설 개선 : 262억원
- (부산) 중소기업물류센터 이전건립 : 78억원
- (여수) 오천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비 : 3.5억원
- (경기) 시화공구상가(조)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대상에 포함



협동조합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넓혔습니다.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우선구매한도 상향 : 10억원 → 50억원

15년만에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를 2배로 상향해
영구화 시켰습니다.

•수의계약한도 상향 : 5천만원 → 1억원(영구 제도화)

※ 조달청 구매대행 품목 확대(5월부터 시행)
- 2개(인쇄·광고물) → 10개 업종(159개 품목)

정부에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용을 독려했습니다.

-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한전 등 40개)과 구매촉진 협약체결
- 조달청장, 국방부장관, LH사장 간담시 적극 활용 요청
- 충남 산하 11개 기관 업무협약
- 강원연구원 등 26개 기관 업무협약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한도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혁신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지원으로
비용절감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 보증규모(억원) : ('18) 600 / ('19) 900 / ('20) 1,320
- 업체수(개) : ('18) 92 / ('19) 322 / ('20) 458
- 참여조합(27개) 약 14억원 수수료 수입 발생

[우수사례] 주유소운영(조)

- 811억원 공동구매 통해 유류 단가 인하 효과
- 조합 2.5억원 수수료 수입

업종별 스마트공장을 통해
제조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 ('20) 13개 조합, 145개사 구축

[협동조합 직접 지원 첫 사례] 펌프(조)

- 펌프 성능시험 측정장비 디지털화

협동화 자금 200억원을 신규 확보했습니다.

- 17~19년 전용자금 全無, 19년 박영선 장관 간담회 건의
 - ('20) 200억원, ('21) 200억원+@ 확보
 - ('20) 28개 협동조합, 309억원 활용





협동조합의 아이디어를 공동사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 공동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지원 : 14개 조합, 2.1억원

[우수사례]

- 교복체육복(조) : 공동브랜드 도입
- 자동차컬러범퍼(조) : 작업환경 개선 통한 공동마케팅 실행방안
- 재활용(연) : 생활폐기물 재활용 공동집하장 건립
-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조) : 공동물류사업

협동조합간 협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 패션칼라(조)-소금(조)

- 패션칼라(조)이 염색시 염료흡수 촉매제인 정제염을 소금(조)에서 공동구매

**협동조합 활성화센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3개) 서울, 강원, 제주 → (4개) 서울, 강원, 제주, 전북
- 지역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및 협업공간으로 활용





협동조합 운영의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협동조합포털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 이용자 중심 서비스, 조합 통합관리·지원
 - 법령보고 온라인 제출, 조합원 정보관리
 - 모바일 앱 통한 회원수첩, 주요 업무처리

대면회의가 어려운 지역 협동조합을 지원합니다.

- 중앙회 12개 지역본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 지역 협동조합 활용 가능

정회원만을 위한 소통·교류공간을 제공합니다.

- KBIZ라운지 리모델링·재오픈



중양회는 협동조합 발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2차 협동조합발전 3개년 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협동조합발전 3개년 계획을
 알차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협동조합의 버팀목이 되다

협동조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손을 내밀고 어깨를 내어줄 수 있도록
중앙회 내부사업들도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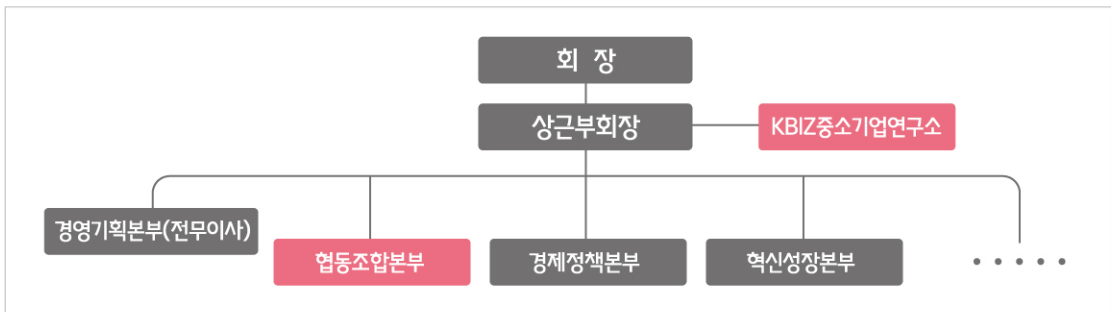




중앙회 임직원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다듬었습니다.

중앙회 조직을 협동조합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 협동조합본부 신설, 2번째 선임본부로 격상
- KBIZ중소기업연구소 설립,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연구 수행



KBIZ 미션, 비전을 재수립하여 'No.1 경제단체' 의지를 다졌습니다.

- 협동조합과 더욱 가깝고 일 잘하는 중앙회로 거듭나고자 노력



노란우산의 비약적 발전을 일궈냈습니다

노란우산이 출범한지 14년만에
재적 150만명, 부금 16조원 달성이 예상됩니다.

구 분	'18	'19	'20	'21.7
재적(만명)	110	122	138	150 ^(e)
부금(조원)	9.5	12	14.8	16 ^(e)

체계적 자산운용 통해
20년에는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구 분	'18	'19	'20
수익률(%)	3.52	3.16	4.94

노란우산 서비스 확대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료·재해 무이자 대출 시행
- 경영컨설팅, 복지서비스
(휴양시설, 재기교육, 심리상담, 건강검진 및 상조서비스 등)
- 대출금리 인하

노란우산 대출금리(%)	'19	'20	'21
	3.4	2.9	2.8

노란우산 누적부금



노란우산 수익률



중소기업 종합공제기관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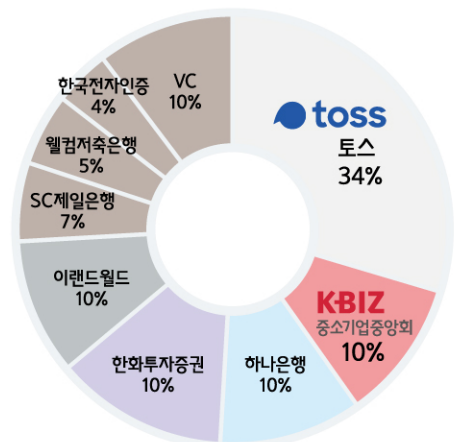
새로운 공제상품을 지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책임보험 출시
- 간편 실손화재공제 출시
-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출시



토스뱅크 참여로
공제사업과의 시너지를 도모하겠습니다.

-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에 10% 지분 참여
- 19.12월 예비인가 취득, 21년 하반기 영업개시 예정
-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견인
- 혁신금융기법 벤치마킹 등 공제사업과 시너지 창출



토스뱅크 지분율



디지털 KBIZ를 통해 고객편의를 강화했습니다.

국세청 보유 과세정보 활용으로
제출서류가 대폭 줄었습니다.

- 관련 증명 발급·제출을 위한 비용절감 및 편의성 제고
(70~80만개 서류 절감)

공제사업의 디지털화로 고객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겠습니다.

- 노란우산 전화대출 한도 확대 : 연 5천만원 → 폐지
- 공제기금 부금내 '원클릭 대출' 시행
- 공제기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제공

코로나19로 수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온라인 수출을 지원합니다.

- 중앙회내 온라인 수출상담실 설치

가입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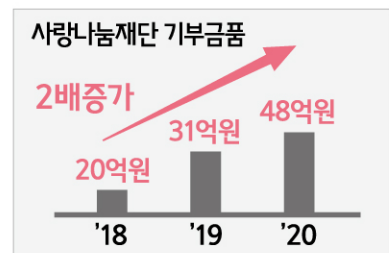


원클릭



중소기업의 따뜻함도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기부금품 2배 이상 증가
– ('18) 20억원 → ('19) 31억원 → ('20) 48억원
- 아름다운 중소기업 나눔콘서트
- 사랑나눔바자회
- 명절맞이 사랑나눔 등 지역사회공헌활동
- 취약계층,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 수해피해지역 재난물품지원(35개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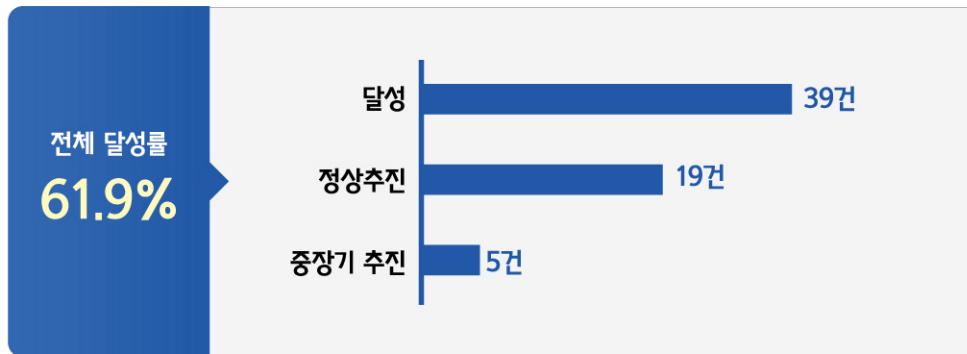




언제나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2년,
회원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 없이 달려왔습니다.

공약 달성률은 61.9%로
공약 하나하나, 소홀함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당당한 중소기업	• 최저임금 동결 :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주52시간 제도기간 1년 부여, 탄력근로 확대(3 → 6개월) • 중소기업전문은행 설립 : 인터넷 전문은행(토스) 참여 •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제도개선 : 업종변경 확대 등
함께하는 중소기업	• 조합추천수의계약제도 상향(5천만원 → 1억원) • 공동구매 전용보증 확대 • 지자체별 지원조례 제정 • 지역 중소기업회장제 도입, 회장 직통전화 설치 등
일 잘 하는 중앙회	• 정부(지자체) 재정사업 신설 및 확대 : 보조금 126억원 → 165억원 • 협동조합본부 신설 · KBIZ중소기업연구소 설립 • 현장애로 발굴 위한 산업위원회 신설(자동차, 유통, 조선 등)

회원 여러분이 함께 했기에 이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회장단과 이사진은 정부와 국회로
그리고 지역중소기업회장은 지자체로
중소기업 현안을 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회장단, 이사진,
지역중소기업회장, 산업·특별위원회와 함께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에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0통을 넘긴 KBIZ편지는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과의 소통창구로서
전달력을 높이겠습니다.





중앙회가 약속드립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환인
新경제3불 문제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원·하청구조에서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에 대한 「거래 불공정」,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간,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 불균형」,
조달시장에서 최저가 입찰로 인한 「제도 불합리」를 개선하겠습니다.

내년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책공약에 반영시키고,
법 개정과 제도시행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중앙회 창립 60주년이 됩니다.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희망 100년을 제시할
‘창립 60주년 미래비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다가올 미래를 차분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같은 바라보는 방향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중앙회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중소기업의 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중소기업

KBIZ 중소기업중앙회